

## 청빈 교황 프란시스코와 남미 선교의 미래

“나는 너무나 큰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와 고난 때문에 겸허히 (교황직을) 받겠습니다.” 아르헨티나 추기경 호르헤 마리오 베르고글리오(Jorge Mario Bergoglio)가 콘클라베에서 교황으로 선출된 후 한 말입니다. 콘클라베가 끝난 후 다른 추기경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하느님은 (나를 선택한) 여러분을 용서하실 것"이라고 우스개 소리를 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오늘 결정을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자신이 교황 직을 맡기에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가 교황에 선출되고 나서 신자들과 만나 축복을 전하는 자리에서 "아시다시피 콘클라베에서는 로마에 주교를 세웁니다. 추기경 형제들이 로마 주교를 찾으러 세상 끝(대륙의 끝 아르헨티나)까지 간 것 같습니다." 그는 교황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고 "로마의 주교"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성 마리아대성당 방문에 앞서 콘클라베에



들어가기 전에 묵었던 호텔에 들러 숙박료를 직접 계산했습니다. 마리아대성당 방문 사실도 현지 관계자들에게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성당 도착 10분 전에야 통보했고, 교황 전용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으로 이동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교황에 선출되고 나서 성 베드로 성당 발코니에 모습을 드러낼 당시 교황의 위엄을 나타내는 붉은 망토를 걸치지 않았습니다. 이날 모든 일정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교통편도 교황청이 마련한 교황 전용차를 마다하고 다른 추기경들과 함께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그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대교구장을 지내면서도 버스를 타고 다녔으며, 대주교 관저 대신 작은 아파트에서 살면서 손수 식사준비를 하는 청빈한 삶을 실천해왔습니다.

프란시스코가 교황에 당선된 후 그의 말과 행보는 파행적이다.



그는 교황 즉위식에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평소 가깝게 지내던 길거리 녀마주의자들을 초청했고 그들과 함께 마떼 차(다른 사람이 마시던 빨대를 돌려가며 빨아먹는 차)를 마시고, 소년원을 찾아 모슬렘과 여인들의 발을 씻기는 일도 서슴없이 했습니다.

"우리가 어디든 갈 수 있고 많은 것을 지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지 인심 좋은 비 정부 자선단체(NGO)에 지나지 않게 된다."

"십자가 없이 걷고, 십자가 없이 원가를 짓고, 십자가 없이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면 우리는 주 예수의 제자가 아닌 세속적인 존재일 뿐."

“영적인 가치가 아닌 세속적 가치를 바탕으로 어떤 일을 이룩하려 한다면 어린이가 모

래성을 쌓는 것과 같아서 곧 모두 무너져 버릴 것이다.”

“세속적 가치를 앞세운다면 우리는 주교일 수도, 사제일 수도, 추기경일 수도, 교황일 수도,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일 수도 있지만 주 예수의 제자는 아니게 된다.”

“사제들은 양떼들과 죄인들 가운데 거하며 ‘양의 냄새’가 나는 목자이어야 한다. 그러하지 않고 진기한 골동품(전통)이나 최신 신제품(급진적 자유주의) 수집만 한다면 슬픈 일이다.”

그의 말에서 전혀 카톨릭적인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개신교 목사들의 설교보다 더 복음적이고 순수한 느낌마저 듭니다. 카톨릭 교회의 개혁을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매력적입니다.

그가 부에노스 아이레스 주교로 있을 때도 그의 소박한 삶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주교관에 살지 않고 작은 아파트에서 살며 손수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출퇴근도 버스나 전철을 이용했고 차량 이동이 필요하면 손수 운전하고 다녔습니다. 추기경이 되었을 때 추기경 복장도 전임자의 것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새벽 4시에 일어나 하루 두 시간 이상 기도하는 경건한 신부입니다. 그의 평생의 삶이 고행과 봉사와 기도의 삶입니다. 그가 자신의 교황명으로 청빈과 겸손으로 널리 알려진, 이탈리아 아시시의 성자 프란치스코를 택한 것도 이 같은 소박한 삶과 무관치 않습니다.

그는 1936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탈리아 출신 철도노동자 가정의 5남매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공립학교에 다니며 원래 화학 기술자가 되려고 했으나 스물두 살이던 1958년 예수회에 입문해 수도사의 길을 걸었으며 산미겔 산호세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한 뒤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철학과 문학을 가르쳤습니다. 신학 수업 이외에 칠레에서도 인문학을 공부한 그는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귀국해 후학 양성에 힘썼습니다. 그는 라틴어, 독일어와 스페인어는 물론이고 이탈리아에 능통해 로마에서 일하는데 의사소통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2억 가톨릭 신자를 이끌게 될 그는 부에노스아이레스 대주교로, 성직 기간 대부분을 고국인 아르헨티나에서 교회를 돌보는 목자로서 활동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의 종교 담당 기자는 새 교황에 대해 "교리에서는 보수적이지만 사회적 이슈에서는 진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아르헨티나 군부 독재 치하에서 예수회를 이끌면서 "비(非)정치화를 견지하라"는 지침을 내렸으며 남미 좌파 성향의 해방신학과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대조적으로 교황은 미혼모 자녀의 세례를 거부하는 성직자들에게 "사람들과 구원의 길 사이를 갈라놓는 위선자들"이라고 날을 세운 바 있습니다. 추기경 재임 당시 사회적 포용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사회에서 주변화된 이들에게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3월 23일 저희 집에서 아르헨티나 교회 지도자들 네트워크인 “씨 뿌리는 자들” 올해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새 교황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 대부분 부에노스 아이레스 주교였던 베르고글리오와 친분이 있던 분들입니다. 개신교 대표 자격으로 천주교 대표인 그와 여러 번 만나 개신교 위치와 권익을 위해 대화를 나누었으며 개신교가 정부로부터 교회로 인정받을 수 있는 종교법 개정을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입니다.

베르고글리오 주교가 교황에 당선되었을 때 아르헨티나 방송들은 “우리가 아르헨티나 하나님을 가졌다(Tenemos un Dios argentino)” 라고 했습니다. 한 야당 정치인은 현 정부를 실책을 꼬집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교황과 메시(세계 최고의 축구 스타)를 가지고 있는데도.” 아르헨티나 사람들에게 교황은 하나님 같은데 그 교황이 아르헨티나 사람일 뿐 아니라 청빈한 “무공해 사제” 라는 것

때문에 아르헨티나와 남미 대륙에서 엄청난 카톨릭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카톨릭 국가들인 남미에서 개신교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고 카톨릭 교회는 그들의 신도들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바티칸의 재정비리와 질서파괴, 성직자들의 추행사건 등으로 골치를 앓던 카톨릭교회가 청빈과 순결의 대명사였던 부에노스 아이레스 주교를 교황으로 선출한 의도도 여기에 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겠다는 것이지요. 실추된 바티칸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잃어버린 남미교구를 되찾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명목상 카톨릭 신자(카톨릭 신자의 90% 이상이 미사에 참석하지 않음)였던 자들이 미사에 참석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비 카톨릭 사람들이 카톨릭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 리오데 자네이로에서 있을 카톨릭 세계청년대회에 교황이 참석할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대회는 역사상 최고의 대회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미의 젊은이 들이 대량 카톨릭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남미 대륙에서 개신교가 발전하고 있지만 목사들의 상식 밖의 미 성숙한 행동, 부의 축재(전용 비행기를 타는 목사들), 도덕적 타락과 교회의 물질만능주의적 세속화로 개신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개신교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 예상됩니다.

남미가 세계최고 추수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남미선교에 미온적이었습니다. 추수지역을 배제하고 미전도종족 선교에 지나치게 치중하고 있습니다. 미전도지역도 당연히 전도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주신 곳을 먼저 선교하는 것은 당연하고 성경적입니다. 추수지역이 계속 추수지역이 아닐 수 있고 닫힌 지역이 계속 닫힌 지역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선교전략에 대한 재고가 필요합니다. 남미대륙의 선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전심전력하여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남미 개신교는 이 문제를 극복할 것인가? 아무리 교황이 개혁을 주장해도 예식 중심의 카톨릭 교회에서 복음을 제대로 듣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신교회가 좀 더 분명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복음이 복음답게 선포되고야 합니다. 남미 대륙에서 복음이 복음 될 때 개신교회는 거대한 조직 교회인 카톨릭에 맞설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개신교회가 세속주의를 극복해야 합니다. 물질주의와 물량주의에서 성경적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셋째, 제자도에 대한 강조가 필요합니다. 먼저 지도자들부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하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넷째, 지도자들이 계급주의를 극복해야 합니다. 카톨릭교회는 교황부터 계급주의를 탈피하려고 하는데 개신교회는 신사도운동을 잘못 이해하여 새로운 계급주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목사 위에 사도, 사도 위에 천사장, 천사장 위에 족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신교 교황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남미 개신교들의 90% 이상이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카톨릭은 더 이상 남미 대륙에서

개신교의 약진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땅 끝” (아르헨티나)에서 온 사람을 교황으로 선출했습니다. 카톨릭 신자가 가장 많은 남미 대륙을 지키겠다는 바티칸의 의지는 결연한 데 세계의 개신교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카톨릭 교회 처럼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은 구조를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본질적인 것으로 승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포장하고 있던 껍질들을 벗어 던지고 제자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껍질들이 너무 오래되어 돌처럼 단단해졌지만 말씀의 물과 회개의 눈물에 담는다면 곧 온유한 새 살을 드러낼 것입니다. 앞으로 남미 대륙은 치열한 영적 싸움의 격전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과연 이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가? 한국 교회와 선교 지도자들은 남미 선교를 재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추신: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목회자 네트워크 “씨 뿌리는 자들” (Red de Sembredores) 7월 8일과 9일 양일 간 아르헨티나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캐톨릭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 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생소한 아르헨티나, 그 땅에서 권오목, 이설희 드림